

일본은행 '26.1분기중 지역경기판단*, 전분기와 동일하게 유지

* 일본은행은 지역금융경제상황을 9개 광역지역별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지역경제보고서(사쿠라리포트) 발표(2026.4.6일)

□ 일본은행은 9개 광역지역 모두 경기가 전분기(1.8일 발표)대비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*하였으나,

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상승이 기업수익 및 개인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, 물류 정체에 따른 공급 제약이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어 지역경기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동향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

*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'2026.4월 현재 지역별 경기판단' 참조

○ 6개 지역은 '완만하게 회복(回復)', 1개 지역은 '개선(持ち直し)', 2개 지역은 '완만하게 개선'으로 판단*

* 일본은행 지역경제보고서상 경기판단에서는 '持ち直し'와 '回復'을 아래와 같이 구분

- 持ち直し(pick up): 경기가 저점에서 이전의 정상상태로 움직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한 상태
- 回復(recovery): 제반 경제지표가 약화되거나 정체되지 않고 정상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며 持ち直し보다 한 단계 높은 경기판단

○ 금일 지점장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— (민간소비*) 중국의 관광 제한 조치에 따른 하방 압력이 있으나 다른 나라 여행객 증가가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, 소비자의 절약 성향에 따른 외식 등 일상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·숙박 수요 및 이벤트 관련 소비, 국내부유층 소비 등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

* 인바운드 수요 포함

— (설비투자) 건설비용 상승으로 투자가 연기·축소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지만 AI 관련 수요의 중장기적 확대 기대, 생산성 향상·일손부족 대응 등을 위한 자동화·디지털 투자 수요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유지

— (수출·생산) 여타 아시아 기업과의 경쟁 격화 등에 따라 일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 글로벌 AI관련 수요 증가가 전력장비 등을 중심으로 확대·파급되면서 견조하게 유지

— (임금) 가격 전가 지연 등에 따른 수익 감소, 중동 정세에 따른 신중한 임금 설정은 임금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, 춘투, 지방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 노력, 최저임금법의 개정 등은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— (가격설정) 소비자의 절약 성향을 반영하여 가격인상을 자제하거나 저가 상품의 다양화 움직임도 있으나, 엔화약세 및 유가급등 등으로 구매비용·인건비·물류비 등의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

<붙임>

2026.4월 현재 지역별 경기판단

지역	소속 도도부현 ¹⁾ (都道府縣)	취업자 수 비중 ²⁾	변화 방향 ³⁾	지역별 경기판단 내용	
				'26.1월	'26.4월
홋카이도 (北海道)	홋카이도	3.9%	⇒	일부 약한 움직임이 있으나 완만하게 개선	(좌동)
토호쿠 (東北)	미야기, 후쿠시마 등	6.4%	⇒	개선	(좌동)
호쿠리쿠 (北陸)	토야마, 이시카와 등	3.9%	⇒	일부 약한 움직임이 보이나 완만하게 회복	(좌동)
칸토·코신에츠 (關東·甲信越)	토쿄, 카나가와, 니가타 등	39.1%	⇒	일부 약한 움직임이 보이나 완만하게 회복	(좌동)
토카이 (東海)	아이치, 시즈오카 등	12.0%	⇒	완만하게 회복	(좌동)
킨키 (近畿)	오사카, 교토, 효고 등	15.9%	⇒	일부 약한 움직임이 있으나 완만하게 회복	(좌동)
츄고쿠 (中國)	히로시마, 야마구치 등	5.5%	⇒	완만한 회복기조	(좌동)
시코쿠 (四國)	에히메, 카가와 등	2.7%	⇒	완만하게 개선	(좌동)
큐슈·오키나와 (九州·沖縄)	후쿠오카, 나가사키 등	10.7%	⇒	일부 약한 움직임이 보이나 완만하게 회복	(좌동)

주 : 1) 1都(도쿄) · 1道(홋카이도) · 2府(오사카, 교토) · 43縣

2) 2025년 기준 지역별 비중

3) 전분기 경기판단과 비교시 경기의 개선 또는 악화 정도의 변화를 나타냄(예를 들어, 개선 정도의 강화·악화 정도의 약화는 「↗」, 개선 정도의 약화·악화 정도의 강화는 「↘」, 변화 없음은 「⇒」)

